

##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과 사회취업과의 효율적 연계 방안

김 소 연

경기 새얼학교

정 은 희\*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직업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23개 청각장애학교 직업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학교의 직업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국 16개 청각장애학교에서 총23개 직업교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이나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교과목 선정에 있어 지역 사회 특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직업교육과 취업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기본교육과정의 직업 준비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격차는 직업교과 전문교사나 실기전담교사의 배치, 기술전문학원에의 위탁교육 및 취업에 유리한 실질적 직업교과의 도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셋째, 청각장애학교와 직업전문학원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기능유지와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 기술교육을 직업전문학원에서 실시하며, 이동이나 수업의 연계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당 요일 전일을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하는 것을 적절한 형태와 운영방안으로 보았다.

주제어 : 청각장애,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취업

## 1.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립과 사회통합으로 보고 있으며,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인 의미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 교신저자(eunheej@chosun.ac.kr)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 기능의 결여에 따라 사회적·직업적 적응 면에서 많은 제한을 가지나, 교육받은 청각장애인은 일반인들 못지않게 여러 전문 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므로, 이 가능성의 세계가 구체적 교육의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김병하, 1989)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수용과 표현의 장애에서 오는 직업 재활의 어려움을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과에 따른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재희(1998)는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은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생활영역을 감안하여 여러 직종 가운데서 이들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되, 현대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직업관을 가지고 기술인이 되어 자활함은 물론 산업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청각장애인들의 직업 욕구와 교육기회도 다양해 졌고, 직업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정자, 2001),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육은 직업교과목의 다양성 결여와 시설 및 예산, 직업지도 교사의 부족 등으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 및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습현장의 다양화와 폭넓은 기초교육을 강화하지 못하며, 졸업 후 취업현장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유미, 2001).

비장애인에게 있어 학교교육은 여러 직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직업준비과정 내지는 탐색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발견하고 학교이외의 2차 교육기관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되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비장애인들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기회나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청각장애인들도 기능대학이나 공공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나, 그 이용도는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교육적 혜택의 최후선상에 고등학교교육이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육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즉 졸업 후 사회취업과 곧바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김삼찬(2004)에 의하면 급속한 사회변화 속도에 맞춘 직업훈련시설의 구비나, 신생직종과 학생의 특성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의 전문교과 운영을 기술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학교교육과 사회취업을 연계시키는데 효율적이라 하였다.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의 실태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김종하, 1993; 김경진, 1996; 임재희, 1998)들은 있으나 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고 조사 연구된 지 10여년에 이르러 사회와 제반 교육여건의 변화가 함께 최근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육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직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직업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직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 교과편성 및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과 취업의 연계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직업교육과 사회취업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의 적절한 운영 형태와 협력체제 구축 시 얻게 되는 장점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육과 사회취업과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학교요람(2005)을 참고하여 전국의 23개 청각장애학교를 1차 표집한 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고등부 직업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학교의 직업교과 담당 교사 전체 59명을 목적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총 59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48부(81.3%)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선행연구 김종하(1993), 김경진(1996), 임재희(1998)의 설문지 문항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문항은 광주·전남에 소재한 청각장애학교 직업교과 담당교사 6명, 정신지체학교 직업교과 담당 교사 6명, 일반 중·고등학교 국어과 담당 교사 3명에게 이메일과 직접면담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구성과 문구에 대해 수정·보완 하였고, 다시 특수교육 전문가와의 토의를 거쳐 본 연구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선택형과 기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내용은 현행 직업교육 교과목 편성 및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이 13문항, 현행 직업교육과 취업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7문항,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7문항으로 총 27문항이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전국 청각장애 학교의 직업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자 표집은 특수교육요람(2005)을 참고로 하였다. 교사들에 대한 예비조사와 특수교육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전국 청각장애학교 직업부장 교사에게 사전에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설문지를 우편으로 59부 발송하여 48부(81.3%)를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문제의 하위 영역별로 단일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반응 백분율, 그리고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개방형 서술 문항에 대해서는 하위영역별로 응답내용을 빈도순으로 기술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의 교과 편성 및 운영실태

#### 1) 전국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과 개설현황

<표 1> 청각장애학교 직업교과별 개설현황

과목	개설 학교수 (%)	과목	개설 학교수 (%)	과목	개설 학교수 (%)
컴퓨터	10(17.2)	봉제	1(1.7)	전자·기계	1(1.7)
도예	7(12.0)	뷰티디자인	1(1.7)	전자출판	1(1.7)
제과·제빵	6(10.3)	산업디자인	1(1.7)	조리실습	1(1.7)
목공예	5(8.6)	수자수	1(1.7)	직업생활	1(1.7)
상업미술	5(8.6)	수직	1(1.7)	직업체육	1(1.7)
양재	4(6.8)	애니메이션	1(1.7)	패션아트	1(1.7)
공예	4(6.8)	인쇄	1(1.7)	한지공예	1(1.7)
포장·조립	2(3.4)	의상디자인	1(1.7)	계	58(100)
				학교당 평균	3.62

2005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23개 과목(중복과목제외)으로, 학교별 개설빈도가 높은 3개 교과를 살펴보면, 컴퓨터 10개교(16.6%), 도예 7개교(11.6%), 제과·제빵 6개교(10%) 순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당 평균 3.6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2) 직업교과 과목 선정 기준과 선정근거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과목 선정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시설 및 기자재를 고려한 학교장과 직업지도 교사들 간의 협의'가 62.5%(30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편성지침' 및 '지역사회 특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한 학교장과 직업지도 교사들 간의 협의'가 각각 14.6%(7명),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은 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학교 상황과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취합하여 적절히 조정'과 '과목을 해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목을 계속 실시하며,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협의를 거쳐 개설'을 언급하였다.

<표 2> 직업교과 과목 선정 기준

내용	응답자수(%)
학교 시설 및 기자재를 고려한 학교장과 직업지도 교사들 간의 협의	30(62.5)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편성지침	7(14.6)
지역사회 특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한 학교장과 직업지도 교사들 간의 협의	7(14.6)
기타의견	2(4.2)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	1(2.1)
무응답	1(2.1)
합 계	48(100)

위와 같은 과목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아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이 16명(케이스 백분율 33.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직업담당 전문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12명(케이스 백분율 24.0%), '직업교과와 취업과의 연계성을 신장하기 위하여'와 '학생들의 능력이나 흥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각각 11명(케이스 백분율 22.9%)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학생수 감소 및 학생들의 장애 중복화

로 인해 다양한 직업교과 운영이 어렵다'고 하였다.

<표 3> 직업교과 과목 선정 근거

내용	응답자수 (명)	반응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	16	28.7	33.3
직업담당 전문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	12	24.5	25.0
직업교과와 취업과의 연계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11	22.4	22.9
학생들의 능력이나 흥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11	22.4	22.9
기타의견	1	2.0	2.1
합 계	48	100	106.2*

\*3명이 다중 응답한 결과임.

### 3) 직업교과 과목 선정 시 고려사항

직업교과 과목을 선정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세 가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직업교과 과목 선정 시 고려 사항

순위	내용	응답자수(%)
1	취업과의 연계성	24(50.0)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지침	9(18.8)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	8(16.7)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상태	7(14.6)
	기타의견	0(0)
	합 계	48(100)
2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	18(37.5)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상태	12(25.0)
	취업과의 연계성	11(22.9)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지침	6(12.5)
	기타의견	1 (2.1)
	합 계	48(100)
3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상태	19(39.6)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	15(31.3)
	취업과의 연계성	9(18.8)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지침	5(10.4)
	기타의견	0(0)
	합 계	48(100)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위로 '취업과의 연계성'이 50.0%(24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집단은 다음으로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편성 지침'이 18.8%(9명),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이 16.7%(8명),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상태'가 14.6%(7명) 순으로 직업교과 과목 선정 시 '취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이 37.5%(18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이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상태' 25.0%(12명), '취업과의 연계성'이 22.9%(11명),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편성 지침'이 12.5%(6명), '기타의견'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의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2.1%(1명) 있었다.

3순위에서는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상태'가 39.6%(19명)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이 31.3%(15명), '취업과의 연계성'이 18.8%(9명), '제7차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편성 지침'이 10.4%(5명) 순으로 나타났다.

#### 4) 직업교과의 지역사회 특성 및 현실성 고려여부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과가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한 과목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보통이다'는 56.3%(27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렇지 않다'는 22.9%(11명), '그렇다'는 12.5%(6명), '매우 그렇지 않다'는 6.3%(3명) '매우 그렇다'는 2.1%(1명)로 나타났다.

<표 5> 직업교과의 지역사회 특성 및 현실성 고려여부

내용	응답자수(%)
보통이다.	27(56.3)
그렇지 않다.	11(22.9)
그렇다.	6(12.5)
매우 그렇지 않다.	3(6.8)
매우 그렇다.	1(2.1)
합 계	48(100)

#### 5) 직업교과 부서배치

현재 학교에서의 학생 직업교과별 부서배치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50%는 인원 조정 차원에서 교사가 배치'가 31명(케이스 백분율 6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 학생의 희망에 의해'가 12명(케이스 백분율 25.0%), '모든 직업교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달리 하여 순회 형식으로 모든 직업부서에 골고루 배치'가 3명(케이스 백분율 6.3%), '학생의 작업·직업 평가에 따라'가 2명(케이스 백분율 4.2%), '100% 학교방침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가 1명(케이스 백분율 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현행 직업교과 부서배치

내용	응답자수 (명)	반응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50%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50%는 인원 조정 차원에서 교사가 배치	31	63.3	64.6
100% 학생의 희망에 의해	12	24.5	25.0
모든 직업교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달리하여 순회 형식으로 모든 직업 부서에 골고루 배치	3	6.1	6.3
학생의 작업·직업 평가에 따라	2	4.1	4.2
100% 학교방침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	1	2.0	2.1
기타의견	0	0	0
합 계	48	100	102.2*

\* 1명이 다중 응답한 결과임.

이상과 같은 학생의 직업교과별 부서배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50%는 인원조정 차원에서 교사가 배치'가 15명(케이스 백분율 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모든 직업교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달리하여 순회 형식으로 모든 직업부서에 골고루 배치'가 12명(케이스 백분율 25.0%), '100% 학생의 희망에 의해'가 11명(케이스 백분율 22.9%), '학생의 작업·직업 평가에 따라'가 9명(케이스 백분율 18.8%), '100% 학교방침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가 2명(케이스 백분율 4.2%) 순이었다.

<표 7> 효율적 부서배치

내용	응답자수 (명)	반응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50%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50%는 인원 조정 차원에서 교사가 배치	15	30.6	31.3
모든 직업교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달리하여 순회 형식으로 모든 직업 부서에 골고루 배치	12	24.5	25.0
100% 학생의 희망에 의해	11	22.4	22.9
학생의 작업·직업 평가에 따라	9	18.4	18.8
100% 학교방침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	2	4.1	4.2
기타의견	0	0	0
합 계	48	100	102.2*

\* 1명이 다중 응답한 결과임.

6) 직업교과 학제 운영 방법과 그 이유

현행 직업교과의 학제 운영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62.5%(30명)이고 그 이유는 ‘7차 교육 과정에 따라’가 25.0%(12명), ‘무응답’이 25.0%(12명), ‘학교의 방침에 따라’가 6.3%(3명), ‘단계별 학습을 위해’가 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학년제’는 37.5%(18명)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가 12.5%(6명), ‘고등부 2,3학년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이 10.4%(5명), ‘학교시설이나 학생수 안배를 고려하여’가 6.3%(3명), ‘무응답’이 6.3%(3명),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위해’가 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업교과 학제 운영 방법과 그 이유

학제	응답자수(%)	이유	응답자수(%)
학년제	30 (62.5)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12(25.0)
		학교의 방침에 따라	3(6.3)
		단계별 학습을 위해	2(4.2)
		무응답	12(25.0)
무학년제	18 (37.5)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6(12.5)
		고등부 2,3학년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	5(10.4)
		학교시설이나 학생수 안배를 고려하여	3(6.3)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위해	2(4.2)
		학생 희망에 따라	0(0)
		무응답	3(6.3)
합계		48(100)	

7)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 상태

학교의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상태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 상태

내용	응답자수(%)
충분하지는 않지만 직업 교육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25(52.1)
조금 부족하여 앞으로 확보를 요한다.	11(22.9)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9(18.8)
많이 부족한 편이다.	3(6.3)
종류와 양은 많으나 유용성이 떨어진다.	0(0)
합 계	48(100)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직업 교육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가 52.1%(25명)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으며, ‘조금 부족하여 앞으로 확보를 요한다.’가 22.9%(11명),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18.8%(9명), ‘많이 부족한 편이다.’가 6.3%(3명) 순으로 나타났다.

**8)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활용 정도**

학교의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활용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 교과 시간에 항상 활용한다.’가 36명(케이스 백분율 75.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한다.’가 6명(케이스 백분율 12.5%), ‘활용은 하고 있으나 시설 및 기자재의 낙후로 활용이 어렵다.’가 5명(케이스 백분율 10.4%), ‘지도교사의 운용 기술이 미숙하여 활용을 못하는 것도 있다.’는 2명(케이스 백분율 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활용 정도

내용	응답자수 (명)	반응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직업 교과 시간에 항상 활용한다.	36	73.5	75.0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한다.	6	12.2	12.5
활용은 하고 있으나 시설 및 기자재의 낙후로 활용이 어렵다.	5	10.2	10.4
지도교사의 운용 기술이 미숙하여 활용을 못하는 것도 있다.	2	4.1	4.2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0	0	0
합 계	48	100	102.1*

\* 1명이 다중 응답한 결과임.

**9) 직업 담당교사 1인당 평균담당 과목수와 주당수업시수 및 소지자격**

현재 직업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평균 담당 과목 수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3개로 직업교과 이외에도 1개 이상 많게는 3개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16.7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과 담당 교사들의 소지 자격으로는 ‘특수교사(교과)’ 소지자가 89.83%(53명), ‘특수교사(직업)’ 소지자가 8.47%(5명), ‘일반교사’ 소지자가 1.69%(1명)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1> 직업교과 담당교사 1명당 평균 담당 과목수와 주당 수업시수

내용	평균	표준편차
평균 담당과목 수	2.31	0.80
주당 평균 수업시수	16.75	2.69

&lt;표 12&gt; 직업교과 담당교사의 소지 자격

항목	내용	빈도	비율(%)
자격종류	특수 교사 (교과)	43	89.58
	특수 교사 (직업)	4	8.33
	일반 교사	1	2.08
합계		48	100

## 2. 직업교육과 취업의 연계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직업 이해 및 사전 적응교육의 필요성

직업 실기 교육 이외에 직업이해 및 사전 적응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가 34명(케이스 백분율 70.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맞은 이직 및 전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가 10명(케이스 백분율 20.8%), ‘모든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가 6명(케이스 백분율 12.5%)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3&gt; 직업 이해 및 사전 적응교육의 필요성

내용	응답자수 (명)	반응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직업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	34	68.0	70.8
맞은 이직 및 전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10	20.0	20.8
모든 직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6	12.0	12.5
필요하지 않다.	0	0	0
기타의견	0	0	0
합 계	48	100	104.1*

\* 2명이 다중 응답한 결과임.

### 2)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관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이 청각장애 학생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받은 직업교과 별로 취업은 어려우나 약간의 도움은 준다.’가 47.9%(23명), ‘교육받은 직업교과목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가 45.8%(22명), ‘교육받은 직업교과 과목별로 취업이 가능하다.’가 4.2%(2명), ‘기타의견’으로 ‘직업교과와 취업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기초자질과 소양 및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 배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4&gt;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관성

내용	응답자수(%)
교육받은 직업교과 과목별로 취업은 어려우나 약간의 도움은 준다.	23(47.9)
교육받은 직업교과 과목은 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22(45.8)
교육받은 직업교과 과목별로 취업이 가능하다.	2(4.2)
기타의견	1(2.1)
교육받은 직업교과 과목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한받는다.	0(0)
합 계	48(100)

### 3) 청각장애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

고등학교 졸업 후 청각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자유 기술하도록 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작업기술 습득의 미흡’이 35.4%(17명)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으며, 그 중 해결방법으로 지적된 것들로는 ‘직업교과 전문교사나 실기 전담 교사의 배치’가 23.5%(4명), ‘전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 ‘직업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기술 교육’이 각각 11.8%(2명), ‘다양한 수업방법 강구 및 현장 체험학습 강화’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적절한 과목의 도입’ 및 ‘산학연계’가 각각 5.9%(1명) 순으로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적응 능력의 기술부족’의 문제로 그 중 해결방법으로 지적된 것들로는 ‘취업 전 대인관계나 직장예절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가 27.3%(3명), ‘산학연계’, ‘언어교육(구화, 필담)강화’, ‘직업전 교육 강화’가 각각 18.2%(2명) 순으로 서술하였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20.8%(10명)로 그 중 해결방법으로는 ‘수화 통역사의 배치’와 ‘언어교육(구화, 필담)강화’가 각각 30.0%(3명), ‘기업체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20.0%(2명) 순으로 언급하였다.

네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기업체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로 그 중 해결방법으로 지적된 것들로는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28.6%(2명), ‘학교홍보 및 교사들의 설득’이 14.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학습된 취업의욕 결여’의 문제로 그 중 해결방법으로는 ‘추수지도 및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접하게 함’ 33.3%(1명) 이 지적되었다.

<표 15> 청각장애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

순위	내용	응답자수 (%)	해결방법	응답자수 (%)
1	학교 직업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작업기술 습득의 미흡	17(35.4)	직업교과 전문교사나 실기전담 교사의 배치	4(23.5)
			전문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2(11.8)
			직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교육	2(11.8)
			다양한 수업방법 강구 및 현장 체험 학습 강화	1(5.9)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적절한 과목의 도입	1(5.9)
			산학연계	1(5.9)
			무응답	6(35.3)
합 계	17(100)			
2	대인관계나 사회 적응 능력의 기술 부족	11(22.9)	취업 전 대인관계나 직장예절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3(27.3)
			산학연계	2(18.2)
			언어 교육(구화, 필담)강화	2(18.2)
			직업전 교육 강화	2(18.2)
			무응답	2(18.2)
합 계	11(100)			
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10(20.8)	수화 통역사의 배치	3(30.0)
			언어교육(구화, 필담) 강화	3(30.0)
			기업체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	2(20.0)
			무응답	2(20.0)
합 계	10(100)			
4	기업체의 청각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7(14.6)	수화통역사의 배치	2(28.6)
			학교홍보 및 교사들의 설득	1(14.3)
			무응답	4(57.1)
합 계	7(100)			
5	학습된 취업 의욕 결여	3(6.3)	추수지도 및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접하게 함.	1(33.3)
			무응답	2(66.7)
합 계	3(100)			
6	학교의 취업 지원 및 추수지도의 부족	0(0)	무응답	
	기타의견	0(0)	무응답	
합 계			48(100)	

#### 4) 직업교육에서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직업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청각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에 유리한 실질적인 직업교과 과목의 도입’이 41.7%(20명)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으며, ‘직업 전 준비교육이나 직업 적응 교육의 실시’가 35.4%(17명),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체계구축’이 10.4%(5명) ‘학교 내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직업관련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각각 4.2%(2명)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배치’와 ‘기타의견’으로 ‘진로탐색’이 각각 2.1%(1명) 순으로 나타나 직업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청

각장애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취업에 유리한 실질적인 직업 교과 과목의 도입’을 지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직업교육에서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내용	응답자수(%)
취업에 유리한 실질적인 직업교과 과목의 도입	20(41.7)
직업 전 준비교육이나 직업 적응 교육의 실시	17(35.3)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체계구축	5(10.4)
직업관련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2(4.2)
학교 내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2(4.2)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배치	1(2.1)
기타의견	1(2.1)
학교의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체제의 정비	0(0)
합 계	48(100)

### 5) 직업교과 신설 분야 및 신설이유

직업교과를 신설한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통신 전문 분야’가 33.3%(16명)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 18.8%(3명), ‘청각장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과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 각각 12.5%(2명), ‘청각장애가 있는 반면 기술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기 때문’과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 각각 6.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생산·기계·기능 분야’로 선택이유로 지적된 것들은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 38.5%(5명)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 23.1%(3명),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과 ‘취업률이 다소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 각각 15.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14.6%(7명)의 ‘예술전문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예술전문분야’에 대한 선택이유는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과, ‘청각장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이 각각 28.6%(2명)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택이유는 ‘장애 특성상 기술교육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과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 각각 28.6%(2명),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 14.3%(1명)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농업·임업·어업 관련 분야’로 그 중 선택이유로 지적된 것들로는 ‘학생들의 장애가 중증·중복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66.7%(명), ‘주위의 도움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이 3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로 많은 응답빈도를 보인 것은 2.1%(1명)의 ‘일반 사무 분야’와 ‘단순 노무 분야’로 ‘일반 사무 분야’에 대한 선택이유는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

100%(1명)로 나타났다.

<표 17> 직업교과 신설분야 및 신설이유

순위	내용	응답자수 (%)	해결방법	응답자수 (%)
1	정보통신 전문분야 (게임, 멀티미디어, 모바일, 웹디자인, 웹기획, 웹마스터, 전산 IT기술)	16(33.3)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	3(18.8)
			청각장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	2(12.5)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	2(12.5)
			청각장애가 있는 반면 기술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기 때문	1(6.3)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	1(6.3)
			무응답	7(43.8)
			합 계	17(100)
2	생산·기계·기능 분야(설치·수리·정비, 전기·전자·통신기능, 조립·생산, 제품가공 및 포장)	13(27.1)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 분야이기 때문	5(38.5)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	3(23.1)
			청각장애가 있는 반면 기술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기 때문	2(15.4)
			취업률이 다소 높은 분야이기 때문	2(15.4)
			무응답	1(7.7)
			합 계	13(100)
3	서비스분야(결혼·공연행사, 미용·뷰티케어, 세탁·청소·방역, 주유·세차, 여행·레저)	7(14.6)	장애 특성상 기술교육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	2(28.6)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 분야이기 때문	2(28.6)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	1(14.3)
			무응답	5(71.4)
			합 계	7(100)
4	예술 전문 분야(시각·그래픽 디자인, 제품·산업디자인, 캐릭터애니메이션, 편집디자인)	7(14.6)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	2(28.6)
			청각장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	2(28.6)
			무응답	3(42.9)
			합 계	7(100)
5	농업·임업·어업 관련분야(농업, 원예, 어업, 축산업)	3(6.3)	학생들의 장애가 증증·중복화 경향 때문	2(66.7)
			주위의 도움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	1(33.3)
			합 계	3(100)
6	일반 사무 분야(워드프로세서, 회계통계, 사무기기조작)	1(2.1)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	1(100)
			합 계	1(100)
7	단순 노무 분야(청소, 주택관리, 배달쓰레기 수거, 산업현장 등)	1(2.1)	무응답	1(100)
			합 계	1(100)
8	기술 공학 및 과학 전문분야(건축·토목·조경, 인테리어, 전기, 통신기술, CAD·CAM)	0(0)	무응답	
	기타의견	0(0)	무응답	
	합 계		48(100)	

### 3. 직업전문 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 1) 효율적 운영방법과 그 이유

직업전문 학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경우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교육만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직업전문 학원에서 실시한다.’가 64.6%(31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직업교육에 관한 모든 이론교육과 기술교육을 직업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가 16.7%(8명), ‘학교에서는 이론교육만 실시하고 기술교육은 직업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가 8.3%(4명), ‘직업전문학원 전문교사들이 학교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학교에서 실시한다.’가 6.3%(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교육만 실시하고 졸업 후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1%(1명), ‘위탁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1명) 등이 있었다.

<표 18> 효율적 운영 방법

내용	응답자수(%)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 교육만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직업 전문 학원에서 실시한다.	31(64.6)
직업교육에 관한 모든 이론교육과 기술교육을 직업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8(16.7)
학교에서는 이론교육만 실시하고 기술교육은 직업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4(8.3)
직업전문학원 전문교사들이 학교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학교에서 실시한다.	3(6.3)
기타의견	2(4.2)
합 계	48(100)

또한 위와 같이 효율적 방법이라고 지적한 이유에 대해 <표 19>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가 66.7%(31명)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고, ‘학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 및 장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가 18.8%(9명), ‘직업교사의 전문직업분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가 8.3%(4명), ‘학교의 고유기능보다는 취업 알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가 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장애별 전문 학원의 부재’가 2.1%(1명) 있었다.

&lt;표 19&gt;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한 이유

내용	응답자수(%)
학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2(66.7)
학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 및 장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18.8)
직업교사의 전문직업분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4(8.3)
학교의 고유기능보다는 취업 알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4.2)
기타의견	1(2.1)
합 계	48(100)

## 2) 적절한 수업실시 형태와 그 이유

직업전문 학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경우 적절한 수업실시 형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주일 중 1~2일 요일을 정하여 해당 요일 전일을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이 58.3%(28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고, ‘매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이 14.6%(7명), ‘매일 오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이 12.5%(6명), ‘매주 토요일을 전일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이 8.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졸업 후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이 2.1%(1명), ‘학교에서는 진로탐색만 실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 교육을 실시’가 2.1%(1명) 등이 있었다.

&lt;표 20&gt; 적절한 수업실시 형태

내용	응답자수(%)
일주일 중 1~2일 요일을 정하여 해당 요일 전일을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	28(58.3)
매일 오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	6(12.5)
매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	7(14.6)
매주 토요일을 전일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	4(8.3)
기타의견	2(4.2)
무응답	1(2.1)
합 계	48(100)

또한 위와 같이 적절한 수업실시 형태라고 지적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하여’가 45.8%(22명)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고, ‘직업교과 수업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가 33.3%(16명), ‘직업교과가 아닌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가 8.3%(4명), ‘직업교과가 아닌 방과 후 활동이나 과외활동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가 6.3%(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인성교육을 위하여’가 2.1%(1명), ‘중·고등부 시절에 기술교육보다 배워야 할 다른 중요한 영역이 더 많기 때문’이 2.1%(1명) 등이 있었다.

<표 21> 적절한 수업실시 형태에 대한 이유

내용	응답자수(%)
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하여	22(45.8)
직업교과 수업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6(33.3)
직업교과가 아닌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8.3)
직업교과가 아닌 방과 후 활동이나 과외활동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6.3)
기타의견	2(4.2)
무응답	1(2.1)
합 계	48(100)

### 3) 직업담당교사의 배치

직업전문 학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경우 직업담당 교사의 배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교과 담당교사가 순회의 형식으로 출장을 간다.’가 52.1%(25명)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직업교과 담당교사를 파견근무 하게 한다.’가 18.8%(9명), ‘직업교육 전문교사를 학원에 전담 배치한다.’가 12.5%(6명), ‘직업교과 담당교사는 학교에 근무하고, 수화통역사를 학원에 배치한다.’가 10.4%(5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직업담당 교사의 배치

내용	응답자수(%)
직업교과 담당교사가 순회의 형식으로 출장을 간다.	25(52.1)
직업교과 담당교사를 파견근무 하게 한다.	9(18.8)
직업교육 전문교사를 학원에 전담 배치한다.	6(12.5)
직업교과 담당교사는 학교에 근무하고, 수화통역사를 학원에 배치한다.	5(10.4)
기타의견	0(0)
무응답	3(6.3)
합 계	48(100)

### 4)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시 문제점

직업전문 학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협력체제 구축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1순위는 ‘직업교육 전문담당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문제’가 33.3%(16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29.2%(14명), ‘직업전문학원 측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가 12.5%(6명), ‘학교장 및 기관장의 이해 부족 문제’와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가 각각 10.4%(5명) 순으로 ‘직업교육 전문담당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문제’를 협력체제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해준 협력체제 구축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31.3%(1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와 ‘직업전문학원 측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가 각각 16.7%(8명), ‘학교장 및 기관장의 이해 부족 문제’와 14.6%(7명). ‘직업교육 전문담당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 부담 문제’가 12.5%(6명)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가 20.8%(10명),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와 ‘직업전문학원 측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가 각각 18.8%(9명), ‘직업교육 전문담당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문제’가 16.7%(8명), ‘학교장 및 기관장의 이해 부족 문제’가 14.6%(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시 문제점

순위	내용	응답자수(%)
1	직업교육 전문담당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문제	16(33.3)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	14(29.2)
	직업전문학원 측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6(12.5)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	5(10.4)
	학교장 및 기관장의 이해 부족 문제	5(10.4)
	무응답	2(4.2)
	합 계	48(100)
2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	15(31.3)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	8(16.7)
	직업전문학원 측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8(16.7)
	학교장 및 기관장의 이해 부족 문제	7(14.6)
	직업교육 전문담당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문제	6(12.5)
	무응답	4(8.3)
	합 계	48(100)
3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	10(20.8)
	직업전문학원 측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9(18.8)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	9(18.8)
	직업교육 전문담당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문제	8(16.7)
	학교장 및 기관장의 이해 부족 문제	7(14.6)
	무응답	5(10.4)
	합 계	48(100)

5)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시의 장점

직업전문 학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경우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의견란에 34명이 수기로 기재 해준 응답내용을 <표 24>와 같이 유사한 내용끼리 모아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습득’이 31.3%(15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보였고, ‘전문적 기술습득을 통한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성 증진’이 12.5%(6명),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성 증진’이 10.4%(5명), ‘직업적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직업생활 가능(이직률 감소)’가 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가능’과 ‘지역사회의 선진시설 이용가능’, ‘기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소’, ‘교사의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용이’가 각각 2.1%(1명)로 나타났다.

<표 24>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시의 장점

내용	응답자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습득	15(31.3)
전문적 기술습득을 통한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성 증진	6(12.5)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성 증진	5(10.4)
직업적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직업생활 가능 (이직률 감소)	2(4.2)
사회통합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가능	1(2.1)
지역사회의 선진시설 이용가능	1(2.1)
기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소	1(2.1)
교사의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용이	1(2.1)
무응답	16(33.3)
합 계	48(100)

IV. 논의 및 결론,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 교과목 편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2005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과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총 23개 과목으로 선행연구(임재희, 1998)와 비교해 볼 때 과목 수는 4과목이 증가했으며, 제과·제빵, 뷰티디자인, 애니메이션, 패션아트, 한지공예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교과개설이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재희(1998)의 연구에서는 목공예나 도예 교과 개설학교수가 많았던 것에 반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컴퓨터나 제과·제빵 등을 더 많은 학교에서 개설·운영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는 최현숙(1996)의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의 컴퓨터관련 직에 대한 취업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변화와 장애인 욕구를 반영하는 교과목 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생활과 미래 생활 적응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선정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직업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과 과목선정 기준은 대부분 학교시설 및 기자재를 고려하여 학교장과 직업지도 교사들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그리고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김종하(1993), 김경진(1996), 임재희(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상태에 관한 설문에는 52.1%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직업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직업교과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지 시대변화나 현실성을 고려한 과목을 신설할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직업교과 과목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서 취업과의 연계성을 가장 많이 지적한 점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과의 지역사회특성 및 현실성 고려여부에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의 문제는 앞으로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 내실화에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육에 있어 예산이나 시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하나의 방안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직업훈련기관이나 기타 일반 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 예산과 시설확충의 부담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으며(장애인 직업안정 연구원, 2002), 특수학교와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직업교과별 부서배치 방법에 대해서 50%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50%는 인원 조정 차원에서 교사가 배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4.6%), 100% 학생의 희망에 의해 배치한다는 경우도 25%에 달해 학교방침과 교사·학생·학부모의 협의나 학교 방침 및 교사의 판단으로 부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임재희(1998)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효율적인 부서배치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모든 직업교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달리하여 순회형식으로 모든 직업부서에 골고루 배치하는 방법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이미 몇몇 정신지체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으로 청각장애학교에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과 담당 교사들의 경우 직업교과 외에도 1개에서 많게는 3개의 일반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생 수 감소에서 야기되는 현상으로 교사의 업무과중과 연계되어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직업교과의 신설이나 다양화를 꾀하려 할 경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직업전문학원과의 연계방안에 있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 있다 하겠다. 또한 직업지도를 위한 교사자격면에서 직업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특수(직업)교사가 아닌 특수(교과)교사가 대부분으로, 이는 직업교과의 전문화나 다양화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직업지도의 질적 향상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직업전문교사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는 안해령(2002), 김정진(1996), 김병하(1992)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둘째,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과 취업의 연계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직업이해 및 사전 적응 교육은 직업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취업률에 비해 청각장애인의 취업률(84%)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 1년 미만이 30.9%라고 보고한 이달엽(2004)의 연구와 이직률이 높은 청각장애인들의 직장생활을 고려할 때 직업이해 및 사전적응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김종하(1993)의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취업뿐 아니라 취업전 교육에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기본교육과정의 직업준비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실생활에 사용하기도 힘들고 취업도 직업교육 직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된다는 이정애(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청각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학교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직업기술 습득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배치나 전문 기술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취업과 관련된 적절한 직업교과의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나 사회적응 능력 부족과,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도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는 임재희(1998)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지적하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기도 하며 취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이 취업 후 직업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직업교육에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취업에 유리한 실질적인 직업교과 과목의 도입을 지적하였다. 정보 통신전문 분야나 생산·기계·기능분야에 관계된 교과목 신설이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다. 실제적으로 컴퓨터 과목을 가장 많은 학교에서 직업교과로 운영하고 있으나, 문서작성이나 그래픽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생산·기계·기능 분야도 포장·조립의 수준 이어서, 같은 분야이긴 하지만 게임이나 모바일, 웹 디자인이나 전기·전자·통신기능 등과 같이 좀 더 전문적 단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던 예산확보나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배치 및 확충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셋째,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직업교육의 본래 목적에 근거하여 직업교육과 사회취업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자가 제시한 청각장애학교와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나 시설 및 장비부족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가장 기본적인 기술교육만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직업전문학원에서 하며, 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일주일중 1~2일 요일을 정하여 해당 요일 전일을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직업교과 담당교사는 순회형식으로 출장을 가거나 파견근무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직업교과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생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업무부담, 타 기관과의 연계를 교과 과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의 문제, 예산 지원의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시 학원에서의 교육이 어려운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의 별도의 교육문제나 수화통역을 위해 투입될 인력확충의 문제, 학원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들도 발생하리라 예측된다. 설문을 통해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실제 모 학교에서 완벽한 위탁교육은 아니나 그 한 형태로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취업준비기간에 취업실습을 대신하여 컴퓨터 관련 전문학원에서 교육받는 실제 사례가 있었으나, 효율적이지 못하며,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미정(2001) 또한 특수학교와 장애인 직업재활 기관과의 연계실태와 개선방안에서는 기관 운영자인 학교장과 기관장의 이해 부족과 인력부족, 조직의 불안정성 및 연계협력 기관간의 역할 분담의 모호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체제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시행착오일 것이라 생각되며, 학교독자적인 체제 운영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과정상의 하나의 체제로서 운영된다면 효율성의 문제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찾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학원의 예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들 수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센터는 현재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컴퓨터나 전자, IT관련 업종은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인쇄, 기계, 전자, 외식, 인문사회영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장애영역이 특화되어 있고, 중증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훈련을 하고 있어 기술 습득과 취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향하고 있다(<http://www.ilsan.or.kr>). 또한 직업훈련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훈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수학교와 산학협력체제를 체결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기술과 기자재 등에 대한 직업교사들의 연수나 학생들의 실습 및 연수를 실시하면 취업률을 높이고 직업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시의 장점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 습득을 통한 직업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성 증진을 지적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문적인 직업기술습득의 미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6개 청각장애학교에서 총 23개 직업교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교과는 취업과의 연계성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이나 직업담당 전문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학교장과 직업지도 교사들 간의 협의로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예산확보와 함께 직업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직업교과의 신설과 관련하여 직업전문교사 즉 특수(직업)교사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가 확충 되어야 하겠다.

둘째, 직업교육과 취업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직업 이해 및 사전 적용 교육은 직업의 올바른 이해나 적절한 직업선택 및 잦은 이직과 전직을 막기 위해 필요하며, 고등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도 기본교육과정의 직업준비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직업교육은 취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 미흡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직업교과 전문교사 및 실기 전담 교사의 배치, 전문 기술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에 유리한 실직적인 직업교과 과목의 도입, 즉 정보통신 전문분야나 생산·기계·기능 분야 등 청각장애 특성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취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 분야의 도입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자가 제시한 청각장애학교와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전문적 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과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적절한 형태와 운영방안은 학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부족 및 시설이나 장비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 및 기본적 기술교육만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은 직업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일주일중 1~2일 요일을 정하여 해당요일 전일을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직업전문학원과의 협력체제 구축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습득과 이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성 증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문적인 직업기술습득의 미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과 사회취업의 효율적 연계방안의 개선·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청각장애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청각장애학교의 직업교육도 이원화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 중증·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의 청각장애학교 고등부 직업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과 장애인 직업전문학원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사회취업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 (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 회사.
- 교육인적자원부 (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 회사.
- 김경진 (1996). 청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하 (1989). 청각장애인의 직업교육과정 모형. 특수교육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김삼찬 (2004).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 김종하 (1993). 청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 청구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혜령 (2002).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업교과 교육의 실태 및 교사들의 요구에 관한 연구 : 정신지체학교 중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달엽 (2004). 청각장애인 진로성숙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재활복지 8(2).
- 이미정 (2001). 특수학교와 장애인 직업재활 기관과의 연계실태와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애 (2005).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 이정자 (2001).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자료.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임재희 (1998). 청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장애인 직업안정 연구원 (2002). 청각장애인 직업준비에 관한 연구. [http:// www.kjdi.re.kr/](http://www.kjdi.re.kr/).
- 장애인 직업안정 연구원 (2002). 청각장애인 직업영역에 관한 연구. [http:// www.kjdi.re.kr/](http://www.kjdi.re.kr/).
- 최현숙 (1996). 청각장애인의 고용관리 방안. 서울 :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 홍유미 (2000).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행정 법무대학원.
- <http://www.dgvti.or.kr>
- <http://www.djcenter.or.kr>
- <http://www.ilsan.or.kr>
- <http://www.jnvti.or.kr>
- <http://www.psvti.or.kr>

## A Study on Efficient Methods for Linking Vocational Education at Special School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Employment

Kim, So-Yeun

Gyeong Gi Sae Eol School

Jeong, Eun-Hee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seek out effective methods for linking vocational education at special school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employment. For this study, I performed a survey by mailing out questionnaires aimed at teachers who teach vocational curricula in 16 special high schools of 23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nationw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as for the organization and current oper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t special school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total 23 vocational curricula were opened and operated in 16 special schools for student with hearing impairment, and most schools did not consider the features of community or realizability in appointing curricula under the pretext of the lack of special teachers for vocational curricula or insufficient related facilities and instruments. Second, in curricula focused on the education selection of high school, it needs to develop curricula irrelevant to the preparatory function for employment in the basic curricular as a way of improving problems in association with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Third, as for the constitution of a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a special school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a special vocational institute that I proposed in this study, a special education institute performs a special technology education for maintaining school functions and solving problems of the lack of experts, facility, and devices.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vocational education at school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employment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

논문 접수: 2007. 2. 14    심사 시작: 2007. 2. 20    게재 확정: 2007. 3. 23